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Influence of Young Adulthood's Social Capital on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ctivities

김 정 인*
Kim, Jungin

■ 목 차 ■

- I. 서론
- II. 청년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 간 관계 논의
- III. 청년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IV. 결론 및 시사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도입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들의 사회자본 현황과 그들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의 사회자본은 기성세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중에서 이웃신뢰와 자원봉사/기부활동이 많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신뢰가 높은 청년들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사회자본 변수들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사회자본, 주민참여예산, 청년

* 수원대학교 부교수

논문 접수일: 2023. 11. 13. 심사기간: 2023. 11. 13. ~ 2023. 12. 14. 게재확정일: 2023. 12. 14.

Although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mandatory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there is criticism that young adulthood's participatory budgeting activitie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Thus, our study targeted young adulthood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status of young adulthood's social capital and the impact of their social capital on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ctivities. As a result, the young adulthood' social capital was found to be somewhat lower than that of the older generation, and among the social capital, young people with high levels of trust in neighbors and volunteerism/donation activities had high levels of experience in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ctivities. Meanwhile, young adulthood with high family trust had less experience with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ctivities, and other social capital variabl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young adulthood' participatory budgeting activities. When we consider these results, we found that our study would be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adulthood's social capital and its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hich was rarely covered in existing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studies, and proposed ways to promote young adulthood' participation in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 Keywords: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ocial Capital, Young Adulthood

I. 서론

최근 들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청년주택, 청년복지, 청년 취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과연 정책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이자 대상자인 청년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관심을 표명할 때 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청년정책 협력형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에서처럼 청년들이 정책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제기/정의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할 때 청년들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정용찬·하운상, 2019). 반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미진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인 참여가 전부라고 한다면 청년들의 요구는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정책의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정책 참여 구성원들의 비율에 있어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구통계학적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과소 대표되는 현상은 세대 간 갈등과 정책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최선,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 저하, 높은 정책 참여 비용과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공공정책 과정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된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자 대표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현지우·임동완, 2022). 특히 청년세대의 참여가 기성세대에 비해 저조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20-40대 연령층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율은 50대 이상 주민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정문기, 2023).

그렇다면 왜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원인을 청년의 사회자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즉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기에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 간 공동체, 상호신뢰 및 호혜적 규범이 형성되어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원활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현지우·임동완, 2022). 즉 지역사회구성원들 간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자본이 활발하게 형성될수록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 활용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이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감 및 고립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Putnam, 1995)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사회자본 형성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경제 위기로 인하여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아지는 상황이다(안진호·최재성, 2022).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발달과정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부족으로 인해 사회자본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여유진,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자본을 인식적 사회자본(지역 공동체의식),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관계적 사회자본(신뢰와 규범)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자본이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네트워크, 신뢰와 규범 등 사회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주민참여 활동이 증가하였다(예: Krishna, 2002; Naranjo-Zolotov et al., 2019).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과 행태를 지니는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은 기성세대와 달리 사회적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청년의 새로운 인간관계는 향후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진호·최재성, 2022). 그러나 청년기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 특히 사회자본 형성은 기성세대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한겨레, 2022).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결정·집행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예산배분 과정에서부터 청년 스스로가 적극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은 기성세대인 중장년층에 비해서 과소대표 되고 있는 실정이다(Checkoway, 2011; Hart, 1992). 이에 청년들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청년정책 방향 설정과 집행방안 마련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만약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사회단체 활동, 공동체인식, 신뢰, 규범 등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더라도 그 영향력이 예상보다 미미하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는 실효성에 있어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관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일부 영역에서만 수행되어 왔다(예: 안진호·최재성, 2022; 이나경, 2022). 특히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년의 사회자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¹⁾ 이에 본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자본 현황을 살펴보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연구의 다수는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시민성, 규범과 인지, 주민애착도, 자치법규(조례) 등의 법적기반, 교육과 홍보, 참여 효능감, 참여 비용 등을 다루었다(곽현근, 2007; 김지영·정문기, 2023; Lamb, 2003).

고,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정책예의 청년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청년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 간 관계 논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 활동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최초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 국가들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의 하나이다(현지우·임동완, 2022). 한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가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 전반에서의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 제도이며,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19).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정부 관료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운영되던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의 폐쇄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현지우·임동완, 2022: 187).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전반에서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인 것이다(윤성일, 2017). 또한 이는 예산과정,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분권화를 촉진하여 단체자치를 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주민들의 예산과정 학습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제도의 유용성을 지닌다. 다만, 행태적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다수가 일회성 및 민원성 사업으로 추진되어 예산지출에 있어서의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주민의견 수립과정에서 특정 집단 및 특수 이익관계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과정 전반에서의 법적 책임성이 낮아지는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정재진, 2020: 106-10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민참여 단계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미국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개발사업으로서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시행된 Model Cities Program을 분석한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연구이다. Arnstein(1969)은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크게는 3단계, 작게는 8단계로 분류하였다. 첫째, 참여의 수준이 가장 낮은 비참여(non-participation) 단계로서 1단계 조작(manipulation) 단계, 2단계 치료(therapy) 단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둘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나 그 참여가 제한적인 형식적 참여 단계(degree of tokenism)로서 3단계 정보제공(informing) 단계, 4단계 자문(consultation) 단계, 5단계 회유(placation) 단계로 분류될 수 있고, 셋째, 실질적 주민참여 단계인 시민권력 단계(degree of citizen power)로서 6단계 협력동반(partnership) 단계, 7단계 권한위임(delegated power) 단계, 8단계 시민통제(citizen control)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²⁾ 이러한 주민참여 단계를 기반으로 할 때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정부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예산과정 참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독려하는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 개인 인식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이 제시된다(예: 현지우·임동완, 2022; 김지영·정문기, 2023).³⁾ 이는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은 맥락이

2) 이와 유사하게 Pretty(1995)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수준에 따라 참여유형을 수동적 참여, 정보제시 참여, 협의적 참여, 인센티브 참여, 기능적 참여, 상호작용적 참여, 자율적 참여 등 7단계로 구분하였으며, Sharp(1990)는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영향력(결정권)에 따라 반응적, 교호적, 통제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3)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개인 인식 요인, 지역사회 요인들은 사회자본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세 요인은 참여와 관련성이 높기는 하지만, 사회 구성원 간 관계에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반면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 사회적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둔다. 특히 제도적 요인(예: 정보제공, 홍보, 교육)은 정부에 의해 형성되는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관련 요인이고, 개인적 요인(예: 참여자원, 효능감, 관심 정도 등)은 주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행태 관련 요인이며, 지역사회 요인(예: 지역 내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등)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가지는 호감도 및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사람들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사람들 간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며, 사람들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자본과 차이가 있다(Coleman, 1988; Putnam, 1995).

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정보제공, 홍보, 교육, 참여기회 보장, 참여제도의 포괄성 등이 있으며, 개인의 인식 요인으로는 참여자원, 효능감, 관심의 정도, 시민의식, 원칙화 등이 있고, 지역사회 맥락 요인으로는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이 있다(김지영·정문기, 2023).⁴⁾ 즉 조례와 같은 제도적 기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 참여 관련 교육기회 제공, 공무원과 같은 공식적 행위자들의 적극적 협력과 의사소통, 참여자의 시간과 사회경제적 비용, 공공참여 관심도, 지역 내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등이 높을 때 주민참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예: 이승중, 2006; 박현근, 2007).

또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에의 참여 정도는 참여자의 포괄성, 참여 절차, 참여 권한, 참여 대표성, 참여 전문성, 참여 지속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현지우·임동완, 2022).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자 범위가 넓어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등 다양한 참여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 권한이 넓어야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연령, 장애유무, 직업,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과정 전반의 지속성, 그리고 제도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우·임동완(2022: 187)의 연구에서 실증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자 포괄성, 대표성,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는 대부분 지역사회 활동에의 주민참여 영향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의 대표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자본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논의한 측면은 상당히 부족하였다.

2.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논의

1) 청년의 사회자본 형성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및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자

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서울시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지영·정문기, 2023). 이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와 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요인으로 제도 요인, 개인의 인식 요인, 지역사회 맥락 요인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참여 요인은 제도 요인, 비참여 요인은 개인의 인식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이론에 의하면 사회자본이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적자본은 경제자본 형성에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Putnam, 1995). 즉 개인들의 인적 관계망은 개인의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제도화된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느 정도 견고한 연계망 소유와 이와 연결된 실제적·잠재적 자원 총량을 의미한다(Bourdieu, 1986: 248). 또한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사람들 간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며, 사람들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의 호혜성으로 구성된다(Coleman, 1988; Putnam, 1995). 이처럼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은 개인의 인적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경제자본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자본은 개인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Putnam(1995)은 사회자본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질인 개인주의적 특성에서 벗어나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을 강조하며 지역공동체 연대 및 협동 등 사회적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측면에 주목했다. 사회자본은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사회자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 또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진호·최재성, 2022: 113; 김정인, 2023a). 청년 개인에게 청소년기를 벗어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기인 청년기의 사회자본은 개인의 안녕감과 자립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우울감 및 고립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Child & Lawton, 2019). 사회초년생으로서 청년들이 사회자본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취업, 결혼, 직업, 그 외 사회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청년들의 사회생활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반해 단절된 사회관계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진다면 청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진현, 2021). 이와 같이 청년기는 사회자본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년 1인가구 비율 증가와 실업률 증가 등 사회진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청년기의 사회자본 형성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유민상, 2021; 김정인, 2023b). 최근 청년들의 사회관계를 조사한 실증연구들에 의하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연계망이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현, 2021). 특히 생애전반 성장기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진학 또는 취업 등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타인과의 접촉과 사회적 연락이나 관계를 줄이며, 때로는 사회적 지원 및 정서적 교류 등을 하지 않는 심각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유민상,

2021; 김정인, 2023c). 이처럼 청년들의 사회자본이 기성세대 보다 낮다는 실증연구는 일부 존재한다(예: Fahmy, 2006; Smith, 1999). 영국의 사회태도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자본 중에서 신뢰와 호혜적 규범은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청년층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세대가 젊어질수록 신뢰와 규범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Smith, 1999).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않은 외부충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청년들이 타인과 매우 낮은 연계를 형성하고 있었다.⁵⁾ 이처럼 최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사회적 관계를 조사한 실증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사회적 고립감은 증가하여 청년들의 사회자본은 기성세대 보다 더욱 낮아지고 있었다.

2)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의 관계

청년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 관계는 사회자본의 효용성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사회자본과 주민자치의 관계를 연구한 Putnam(2000)의 연구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Putnam(2000)에 의하면 미국의 참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중요한 요인에는 사회자본 감소가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보다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예: 비대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온라인 물품 주문)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자본이 감소하게 되며,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Putnam은 주민들 간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자본이 공고하게 구축된 지역일수록 주민참여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한다.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외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예: 김순은, 2014; Naranjo-Zolotov et al., 2019). 그리고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사회자본이 주민참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연구 중에는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참여제도에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참여적 행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의 중개자, 협력

5) 예를 들어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2명 이하인 청년은 18.1%, 타인과의 전반적 교류 빈도가 3개월에 한두 번 미만인 청년은 8.5%(대면 교류) 및 8.1%(비대면 교류), 사회적 지원이 없는 청년은 9.6%(정보적 지원), 4.5%(도구적 지원), 3.8%(정서적 지원)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은둔 청년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의 비율이 5.1%나 있었다.

과 포용력,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 참여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은, 2014). 또한 사회자본은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금천구 내에서 시와 구청을 중심으로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독산3동, 그리고 인접한 동네이기는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마을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관계를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자본(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이 두 지역 모두의 주민참여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 주민참여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정현·정문기, 2019). 이 밖에도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주민 389명을 조사한 분석 연구에서도 이웃과의 유대감 등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숙, 2015). 더 나아가 사회자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접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주민들의 선호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규범, 수평적 연결망, 지방자치단체 신뢰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접촉 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곤수·송건섭, 2007).

사회자본이 주민참여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밝힌 다수의 연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존재한다. 미국 69개 마을공동체(village communities)를 대상으로 2년간 주민들의 지방정부 정치참여를 조사한 결과 사회자본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과 지역사회의 공공 의사결정 과정 연결을 지원해 주는 유능한 대리인(예: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이 있을 때 주민참여는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rishna, 2002). 사회자본이 낮은 개발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태국의 지방정부 주민들의 사회자본, 주민참여, 지방정부 성과를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주민들의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공적 업무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높아졌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공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강화되었다(Suebvises, 2018). 또한 사회자본은 온라인 주민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포르투갈 지방정부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정부신뢰, 공동체 소속감,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지방정부 온라인 주민참여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도 주민참여가 증가하였다(Naranjo-Zolotov et al., 2019).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국의 UK General Household Survey를 활용하여 16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67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청년들의 사회자본은 그들의 주민참여 규범과 가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Fahmy, 2006). 특히 신뢰와 호혜성 등을 높게 인식한 청년일수록 그들의 정치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자료를 활용하여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있는 청년 9,13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공동체 연결이 그들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Duke et al., 2009). 연구 분석 결과 청년기에 가족과 공동체 연결이 강할수록 투표, 커뮤니티 주민 서비스 참여 등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사회자본을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ethnic origin)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Teney & Hanquinet(2012)는 벨기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에 따라 사회자본 유형을 6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 따른 정치적 참여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높은 사회경제적지위를 지닌 비이민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지니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청년들이 지닌 사회자본 정도에 따라 정치적 참여 등 주민참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연구	대상	주요 내용	
모든 연령 대상	김순은 (2014)	• 서울 은평구 주민자치회	• 사회자본이 형성될수록 주민자치회 성과에 기여
	정현·정문기 (2019)	• 서울 금천구 문화마을 만들기	• 사회자본은 마을만들기 사업 성공에 기여 • 특히 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에 주요한 사회자본 구성요소가 됨
	Krishna (2002)	• 미국 69개 마을 공동체	• 사회자본은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요인 • 사회자본 효과는 유능한 대리인이 있을 때 증가
	Naranjo-Zolotov et al.(2019)	• 포르투갈 지방정부 온라인 주민참여	• 공동체 소속감, 정부신뢰, 구성원 간 상호작용 등 사회자본이 증가할 때 온라인 주민참여 증가
청년층 대상	Fahmy (2006)	• 영국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관계	• UK General Household Survey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은 청년의 주민참여 규범과 가치 증진에 긍정적 영향
	Duke et al. (2009)	• 미국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관계	• 미국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자료 분석 • 청년기에 가족과 공동체 연결이 강할수록 투표, 커뮤니티 주민 서비스 참여 등 주민참여에 긍정적 영향
	Teney & Hanquinet (2012)	• 벨기에 청년들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관계	• 벨기에 청년들을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에 따라 사회자본을 분류한 다음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 분석 •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비이민계층인 청년들은 높은 사회자본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

청년 참여는 청년들이 개인과 집단으로서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Hart, 1992). 특히 청년기 정책과정에서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청년들이 정책과정에서 중장년층에 비해 과소대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과정 모든 측면에서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는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의 주민 참여 부족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Loncle et al.,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청년들 스스로를 위한 정책과정의 목표설정, 자원할당, 프로그램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을 위한 예산 등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Checkoway, 2011; Hart, 1992). 이는 지방정부 정책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과소대표 현상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예산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자본이 요구된다. 청년기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나타나고,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그들의 사회적·정치적 의식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기의 사회자본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기에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향후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 및 사회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Fahmy, 2006).

이상에서 검토한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청년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관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인식적 사회자본(공동체의식),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관계적 사회자본(신뢰와 호혜적 규범)과 같이 다차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Putnam, 1995; Nahapiet & Ghoshal, 1998; Lin et., 2001). 첫째, 인식적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 공동체의식이 대표적인 인식적 사회자본이 된다(Lin et., 2001).⁶⁾ 개인적 친밀감, 지속성, 사회적 통합 등을 강조하는 공동체의식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 구성원들의 문제를 개인 또는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구성원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가치를 의미한다(Mcmillan, 1976).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회구성원들은 평소에도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과의 접촉을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며, 지역주민들과 높은 연대

⁶⁾ 특히 Putnam(2000)은 공동체와 사회자본을 유사한 개념으로 보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의식을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의식을 지니고, 상호작용하며, 지역 간 갈등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특징을 지닌다(Davidson & Cotter, 1989). 지역 공동체의식이 높을 때 지역주민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김대건, 2011). 특히 지역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주민참여와 지지는 지역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⁷⁾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년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가 증가되어 해당 제도에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다.

구조적 사회자본으로는 네트워크를 고려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이나 조직이 참여하여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Putnam, 2000). 지역주민들과의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은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주민들 간 상호주의 및 협동 역량이 증진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민주주의가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이곤수·송건섭, 2007). 지역사회 사회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이 증진될수록 지역주민들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특히 자발적 결사체인 네트워크는 사회자본 효용성 증진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Putnam, 1995; Suebvises, 2018),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단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활동 동기도 증가되어 해당 제도에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다.

마지막, 관계적 사회자본으로는 호혜성 규범과 신뢰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신뢰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Putnam, 1995; 2000).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를 통한 믿음의 형성, 즉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Putnam, 1995; 2000). 불특정한 다수와의 신뢰가 형성될 때 감시 비용과 통제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서로 간의 협력을 증진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신뢰는 대인신뢰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신뢰도 포함하고 있다(Narayan & Cassidy, 2001). 지역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이 증가할수록 정부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규범은 호혜적 결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Bourdieu, 1986). 따라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호혜적 규범이 형성될수록 지역 구성원들 간 차별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증진될 수 있어 주민들의 지역사회

7) 서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주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정보제공형 참여, 주민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최문형·정문기, 2015).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는 활발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신뢰(대인 신뢰 및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고, 구성원 간 호혜적 규범이 형성될 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청년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사회자본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사회자본을 지역 공동체의식,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측면에서 검토하여 각 요인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사회자본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청년들은 높은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단절, 낮은 사회적 관계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연대감, 상호작용, 공동체의식, 신뢰 등이 낮아지는 등 사회자본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사회자본은 그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인식적 사회자본인 청년들의 지역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청년 스스로가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년들은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통해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혹은 사업 예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구조적 사회자본인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즉 청년들의 사회단체 활동이 증가할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특히 종교단체, 봉사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시민단체 등과 같은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주민참여의 공식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소통 기구로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단체 활동, 정치 및 사회문제 해결 활동, 의견제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청년들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관계적 사회자본인 신뢰와 호혜성 규범 역시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람 간 신뢰 특히 이웃이나 지인과의 신뢰가 높을수록 그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할수록 해당 기관이 이행하는 정책과정에 만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가 증가할수록 기관의 정책 수용성이 높아져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호혜적 규범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행태를 나타낼 것이다. 선행연구(예: 김대건, 2011; 이곤수·송건섭, 2007; Davidson & Cotter, 1989; Narayan & Cassidy, 2001; Putnam, 1993; Suebvises, 2018)를 기반으로 한 이상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청년세대의 사회자본은 기성세대의 사회자본 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2: 지역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년들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네트워크가 강한 청년들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대인신뢰와 기관신뢰가 높은 청년들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5: 호혜적 규범이 강한 청년들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설정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⁸⁾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주민참여예산 활동, 사회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문항들을 질문하였다.⁹⁾ 그 결과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는 총 8,077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청년층이 누구인지, 즉 청년층의 연령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법령에서

8) 본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 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다.

9) 조사방법으로는 컴퓨터 보조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응답자 자기기입식방법 조사, 종이조사(Pen-and-Paper Personal Interviews) 방법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에는 청년의 연령을 40대까지로 설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예: 안진호·최재성, 2022; 김정인, 2023a)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 가장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을 청년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역시 학교, 취업, 결혼 등의 경험에 있어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 계층을 20대(19세부터 29세 이하)와 30대(30세부터 39세 이하)로 구분한 분석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인 청년들은 총 2,572명[20대(19세 포함): 1,327명(51.6%), 30대: 1,245명(48.4%)]이었으며, 남성 1,327명(52%), 여성 1,234명(48%)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미혼 1,726명(67.1%), 배우자 있음 828명(32.2%), 동거 13명(0.5%), 이혼 5명(0.2%)이었다. 또한 청년들의 학력은 고졸 이하 199명(7.8%), 대졸(4년제 미만) 566명(22%), 대졸(4년제 이상) 1,749명(68%), 대학원 이상 59명(2.3%)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소득분포는 소득 없음 715명(27.8%), 100만 원 미만 82명(3.2%), 100-200만 원 미만 237명(9.2%), 200-300만 원 미만 903명(35.1%), 300-400만 원 미만 440명(17.1%), 400-500만 원 미만 108명(4.2%), 500만 원 이상 88명(3.4%)이었으며, 청년들의 직업은 관리자 11명(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5명(3.7%), 사무직 1,061명(41.2%), 서비스 303명(11.8%), 판매 199명(7.7%), 농림어업 6명(0.2%), 기능노무 66명(2.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0명(1.5%), 단순노무 종사자 9명(0.4%)이었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1,164명(45.2%), 비수도권 1,409명(54.8%)이었으며, 도시(동부) 2,261명(87.9%), 농어촌(읍·면부) 312명(12.1%)으로 나타났다.

3. 변수설정과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주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예: 김지영·정문기, 2023)을 참조하여,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여부를 이항변수(0=경험하지 않음, 1=경험함)로 측정하였다.¹⁰⁾ 그 결과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 104명(4.1%)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2,468명(95.9%)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없

¹⁰⁾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에서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귀하는 지난 1년(2020. 9. 1-2021. 8. 31)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에 응한 20대(19세 포함) 청년 1,327명 중 61명(4.6%), 30대 청년 1,202명 중 43명(3.4%)이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40대의 경우 조사에 응한 해당 연령대 총 1,511명 중 90명(5.9%), 50대 1,597명 중 72명(4.5%), 60대 이상 2,397명 중 114명(4.8%)이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미흡하며, 특히 20대(19세 포함) 보다 30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더욱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사회자본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예: Bourdieu, 1986; Putnam, 1995; 2000). 첫째, 지역 공동체의식은 청년이 어느 정도로 개인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값이 높을수록 공동체 이익(공동체의식)을 우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¹⁾ 둘째, 네트워크는 사회단체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청년들의 사회단체 활동은 종교단체, 동호회(스포츠, 여가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동창회/향우회,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의 활동, 사회경제적 조직 활동 정도를 5점 척도(①소속된 적이 없다, ②과거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④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⑤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공모임 활동 변수는 시민단체 활동, 동창회/향우회 활동,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활동, 사회경제적 조직 활동의 의미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종교단체 활동, 시민단체 활동,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 변수들을 제외하고 동호회 활동, 동창회/향우회 활동,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의 활동만을 네트워크 변수로 고려하였다(참조 <부록 1>). 셋째, 신뢰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대인신뢰)와 기관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대인신뢰는 사람들(예: 일반사람, 가족, 이웃, 지인)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¹²⁾ 그러나 대인신뢰 중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변수는 가족, 이웃, 지인에 대한 신뢰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 이를 제외하고 가족, 이웃, 지인에 대한 신뢰만을 대인신뢰 변수로 고려하였다. 또한 기관 신뢰는 본 연구 주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①전혀 믿을 수 없다, ②별로

11) 이와 관련한 설문 질문은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0=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5=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10=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0점에서 10점으로 갈수록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질문을 역(reverse)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12)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다음 집단들(가족, 이웃, 지인)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①전혀 믿을 수 없다, ②별로 믿을 수 없다, ③약간 믿을 수 있다, ④매우 믿을 수 있다)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민을 수 없다, ③약간 믿을 수 있다, ④매우 믿을 수 있다).¹³⁾ 넷째, 호혜적 규범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범성을 4점 척도(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약간 동의한다, ④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 개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개인의 참여의향 및 참여행태와 관련성이 높아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간주하였다. 우선 정치사회 현안 활동은 청년의 정치·사회 현안 활동 5문항(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제재,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서명운동 참여,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 공무원·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 전달)을 4점 척도(①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②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③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④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로 측정하였다.¹⁴⁾ 또한 사회적 소통은 대상이 청년층임을 고려하여 온라인 사회적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기술사용에 익숙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어(Venkatesh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소통을 온라인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청년들이 정보획득을 위해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카페, 온라인 동영상 매체(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 이용 정도 4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¹⁵⁾ 그리고 참여인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예: 현지우·임동완, 2022), 본 연구에서도 청년들의 참여인식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참여인식은 선거 시 투표 참여의 중요성, 정부업무에 대한 관심, 사회 또는 정치단체 활동을 7점 척도(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터 ⑦매우 중요하다까지, 7점 척도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음)로 측정되었다.¹⁶⁾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소속감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소

13)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신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로 측정하였다.

14)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에서는 응답 문항이 역으로 측정되어(예: ①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④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였다.

15) “귀하는 평소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①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②몇 개월에 한 번, ③한달에 1-3일, ④일주일에 1-2일, ⑤일주일에 3-4일, ⑥일주일에 5-6일, ⑦매일)

16) 구체적인 질문은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①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②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③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이다.

속감이 높을수록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Krishna, 2002)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지역 소속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¹⁷⁾ 또한 청년들의 개인특성 변수인 성별, 학력, 직업여부, 이념적 성향, 거주지역 등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우선 성별의 특성과 학력 정도에 따라 주민참여 행태가 달라질 수 있어 성별과 학력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학력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졸이어서 대학 4년제 미만과 대학 4년제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시간 또는 비용 등의 경제적 자원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에(예: 김지영·정문기, 2023), 취업여부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으며¹⁸⁾, 청년들의 이념적 성향 즉 진보와 보수 성향도 5점 척도(①매우 보수적, ②다소 보수적, ③중도적, ④다소 진보적, ⑤매우 진보적)로 측정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으로 수도권 거주 여부와 도시거주 여부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변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측정 및 기술통계

구분	변수		측정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참여	주민참여예산 활동 여부	지난 1년간 주민참여예산 활동 유무 (1=활동 경험 있음, 0=경험 없음)	.04(.197)	
독립 변수	사회 자본	공동체의식	청년의 공동체 인식 우선 가치(11점 척도)	4.25(1.43)	
		네트워 크	사회 단체 활동	동호회 활동(5점 척도)	2.22(1.33)
				동창회/향우회 활동(5점 척도)	2.35(1.33)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활동(5점 척도)	1.54(1.02)
	신뢰	대인 신뢰		가족에 대한 신뢰(4점 척도)	3.63(.56)
				이웃에 대한 신뢰(4점 척도)	2.61(.69)
				지인에 대한 신뢰(4점 척도)	2.91(.77)
	기관 신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4점 척도)	2.57(.73)	
	호혜적 규범		어려운 사람을 도움(4점 척도)	2.95(.60)	
통제	정치·사회현안 활동		온라인 의견제제, 정부 또는 언론 의견제시,	1.88(.91)	

17)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에서 제시된 문항은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이며, 이는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18) 청년의 취업여부는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의 문항을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0=아니오, 1=예).

구분	변수	측정	평균 (표준편차)
변수		서명운동 참여,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 민원 전달(4점 척도)($\alpha = .912$)	
	온라인 사회적 소통	온라인 매체 이용 정도(7점 척도)($\alpha = .763$)	5.84(1.10)
	참여인식	선거 시 투표 참여 중요성, 정부업무 관심, 사회 또는 정치단체 활동(7점 척도)($\alpha = .676$)	5.05(.98)
	지역 소속감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소속감(4점 척도)	2.82(.69)
	성별	1=여성, 0=남성	.47(.49)
	학력	대학 4년제 미만=0, 대학 4년제 이상=1	.70(.45)
	직업여부	미취업=0, 취업=1	.70(.45)
	이념적 성향	진보와 보수 성향(5점 척도)	3.17(.72)
	도시여부	1=도시(동부), 0=농어촌(읍면부)	.54(.49)
	수도권	1=수도권, 0=비수도권	.87(.32)

본 연구에서의 측정은 가설 검증 방법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었다. 우선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19세 이상과 39세 이하)와 기성세대(40세 이상)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사회자본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사회자본에 차이가 있는지를 20대(19세 이하 포함)와 30대로 구분하여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3〉 참조). 그리고 가설 2-5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임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특히 가설 2-5의 검증과정에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1〉 참조).

4. 세대에 따른 사회자본 평균 차이 분석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자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대 간 사회자본 현황을 〈표 3〉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19세-39세)와 기성세대(40세 이상)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의 종류에 따라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사회자본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 의식과 호혜적 규범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창회/향우회 활동에 있어서는 청년세대들의 활동이 낮았지만,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은 기성세대 보다 청년세대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와 관련해서도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신뢰를 제외하고 대인신뢰와 기관신뢰 대부분에서 청년층의 평균이 기성세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웃에 대한 신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낮았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신뢰는 예상과 달리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청년층은 자신과 친밀도가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신뢰는 기성세대 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사회자본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청년층은 기성세대 보다 개방성이 낮으며 다소 폐쇄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신뢰에 있어서도 가족신뢰가 높게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동호회 활동 등 자신과 친근감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태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예: 이웃, 기관)과 단체(예: 동창회/향우회)에 대한 참여는 부족하게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은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이타적인 동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은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층 내의 사회자본 형성은 다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30대보다 20대(19세 포함)가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 면에 있어서 20대의 사회자본 수준이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청년층의 사회자본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에서처럼 청년층의 사회자본이 모든 측면에서 기성세대에 비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청년들의 사회자본 특징은 주민참여예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표 4>에서 분석하였다.

<표 3> 청년층의 사회자본 평균 분석

변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평균 비교			20대(19세 포함)와 30대 평균 비교		
			청년세대	기성세대	t 값	20대 (19세 포함)	30대	t 값
공동체의식			4.25	4.30	-1.41	4.27	4.22	.86
네 트 워 크	사회 단체 활동	동호회 활동	2.22	1.95	8.73**	2.32	2.12	3.95**
		동창회/향우회 활동	2.35	2.49	-4.44**	2.29	2.42	-2.49*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	1.54	1.48	2.41*	1.59	1.49	2.59*
신	대인	가족 신뢰	3.63	3.59	3.09**	3.64	3.62	.74

변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평균 비교			20대(19세 포함)와 30대 평균 비교		
			청년세대	기성세대	t 값	20대 (19세 포함)	30대	t 값
회 신뢰	신뢰	이웃 신뢰	2.61	2.81	-11.9**	2.59	2.64	-1.82
		지인 신뢰	2.91	2.87	1.79	2.92	2.90	.70
	지방자치단체 신뢰	2.57	2.63	-3.45**	2.57	2.56	.18	
호혜성 규범			2.95	2.97	-1.16	2.95	2.95	.04

* $p < 0.05$, ** $p < 0.01$

5.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4〉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1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모형 2는 20대(19세 포함) 청년을, 모형 3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통제변수를 포함한 사회자본 주요 변수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는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로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 가족신뢰, 이웃신뢰가 제시되었다.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이 활발하고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은 청년들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높았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 경험이 많고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은 청년들일수록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행태가 나타났다.

반면 그와는 반대로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은 청년들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 공동체의식,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을 제외한 네트워크 변수들, 이웃신뢰와 가족신뢰를 제외한 신뢰 변수, 호혜적 규범 등은 모두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공동체의식과 호혜적 규범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네트워크(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와 신뢰(이웃신뢰)의 일부 변수만이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접촉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이근수·송건섭, 2007),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신뢰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모든 청년계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은 20대(19세 포함)와 30대 청년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20대(19세 포함)의 경우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 가족신뢰(-), 지인신뢰(-)가, 30대의 경우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 가족신뢰(-), 호혜적 규범(-)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제시한 가설 2-5와는 다소 다른 것이었다.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 다수의 신뢰 변수들, 호혜적 규범은 그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중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과 이웃신뢰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와 5는 기각되고, 가설 3과 가설 4의 경우에도 부분 채택되었다.¹⁹⁾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활동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점과 차이점이 모두 나타났다. 청년들의 사회자본(특히 네트워크와 신뢰)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은 청년들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활동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과 호혜적 규범이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호혜성이 청년들의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예: Fahmy, 2006)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치·사회 현안 활동 변수였다. 청년세대 모든 계층뿐만 아니라 20대(19세 포함) 청년들에 있어서도 정치·사회 현안 활동이 활발한 청년들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19세 포함) 청년층에서는 지역소속감과 진보성향이 강한 청년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보다 명확하게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성세대(40세 이상 연령)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성세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이 높은 기성세대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높았으며, 반면 가족신뢰(-)가 높은 기성세대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 외 다른 사회자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정치·사회 현안 활동(+), 지역소속감(-), 학력(+), 이념적 성향(-), 수도권(-) 변수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모두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사회자본 중에서 가족신뢰(-), 이웃신뢰(+), 동창회/향우회 활동(+),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정치·사회 현안 활동(+), 지역소속감(-), 학력(+), 수도권(-), 도시여부(-)가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청년세대에서는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가족신뢰(-)와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웃신뢰(+),의 유의미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모형 1(청년세대 모두)		모형 2[20대(19세포함)]		모형 3(30대)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odd ratio)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odd ratio)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odd ratio)	
독립 변수	공동체 의식	.05(.07)	1.05	.01(.10)	1.01	.12(.12)	1.12	
	네트 워크	동호회 활동	-.01(.09)	.987	-.11(.13)	.899	.13(.17)	1.13
		동창회/ 향우회 활동	.07(.09)	1.07	.09(.13)	1.104	.15(.17)	1.16
		자원봉사/ 기부단체 활동	.58(0.9)**	1.78	.57(.12)**	1.77	.53(.17)**	1.71
	신뢰	가족 신뢰	-.82(.17)**	.442	-.66(.24)**	.517	-1.1(.29)**	.32
		이웃 신뢰	.34(.16)*	1.41	.32(.21)	1.38	.35(.27)	1.42
		지인 신뢰	-.18(.14)	.839	-.41(.19)*	.661	.11(.24)	1.11
		지방자치단 체 신뢰	-.07(.14)	.93	-.14(.19)	.866	.13(.24)	1.13
		호혜적 규범	-.27(.18)	.761	.31(.26)	1.36	-.88(.28)**	.42
	통제 변수	정치·사회 현안 활동	.43(.12)**	1.54	.57(.15)**	1.76	.18(.21)	1.19
온라인 사회적 소통		-.08(.09)	.923	-.18(.12)	.836	-.08(.16)	.93	
참여인식		.02(.12)	1.01	.19(.17)	1.21	-.19(.18)	.83	
지역 소속감		.17(.15)	1.18	.50(.22)*	1.65	-.20(.23)	.82	
성별		-.29(.22)	.74	-.28(.29)	.756	-.15(.37)	.85	
학력		.21(.25)	1.23	.45(.36)	1.57	-.13(.38)	.88	
직업		-.38(.24)	.68	-.47(.31)	.624	.05(.66)	1.05	
이념적 성향		.23(.14)	1.27	.48(.20)*	1.61	-.03(.22)	.97	
수도권		-.11(.22)	.89	-.12(.30)	.886	.07(.38)	1.07	
도시		-.36(.31)	.69	-.59(.42)	.555	-.12(.50)	.885	
상수	-2.6(1.2)*	.07	-5.8(1.7)**	.003	.86(2.0)	2.37		
Model X ² (df)		160.15(19)**		104.16(19)**		91.03(19)**		
-2LL		712.6		392.7		282.5		

* $p < 0.05$, ** $p < 0.01$

IV. 결론 및 시사점

한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년의 사회자본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회자본을 인식적 사회자본(지역 공동체의식),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관계적 사회자본(신뢰 및 호혜적 규범)으로 분류하여, 청년들의 사회자본 수준과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 가족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사회자본 변수들은 기성세대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었다.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이 활발하고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은 청년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족신뢰가 높은 청년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들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 활동 간 관계는 20대(19세 포함)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에게도 사회자본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수행된 사회자본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예: Putnam, 1995; 2000)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이 높아질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구조적 사회자본인 네트워크와 관계적 사회자본인 신뢰는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해 향후 청년들의 사회자본 증진과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 특히 동호회 활동이나 사회봉사 활동들을 증진시키고 이웃과 같은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활성화시키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 동호회 활동과 자원봉사/기부활동은 청년층이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단체 참여는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강화하는데에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에 청년들의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⁰⁾

둘째, 청년들의 원활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신뢰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봉사/기부활동 활성화,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이웃신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기부활동은 20대(19세 이하)와 30대 청년 모두에게 그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경험이 많은 청년들일수록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자원봉사/기부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 등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주성수 외, 2012). 이에 청년들은 지속적인 자원봉사/기부활동 수행을 위해 공식적인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동기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제안사업 반영 비율을 높이고, 주민제안 사업 중에서도 자원봉사/기부활동 영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중에서 주민제안 된 사업은 44.5%가 반영되었으며, 예산의 경우 13.5%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주민제안 사업의 반영은 미흡한 편이다(정재진, 2020). 특히 참여도가 낮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주민제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과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들의 가족신뢰가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신뢰가 높은 청년일수록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족에 대한 신뢰는 가족 간 존중 등의 긍정적 영향도 초래하지만, 그 반면에 가족신뢰 증진이 청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관심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회를 갈등지향적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족을 통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장용석 외, 2009; 권연화·최열, 2021). 또한 청년들의 가족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사회와 이웃에 대한 개방성과 연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

20) 가령 서울시의 경우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청년 대상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련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 즉 청년들의 높은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자칫 가족주의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가족의 영속성과 이익을 우선하는 가족주의는 교육 및 돌봄 등 서비스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가족주의가 사회보다는 가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장경섭 외, 2015). 따라서 청년들의 가족주의 강화는 이웃 및 지역사회에 대한 폐쇄성을 높이고 타인과의 연대와 개방성을 낮출 수 있는 한계를 지닐 수 있어 가족신뢰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지원 외, 2008). 이를 통해 가족신뢰와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 및 타인에 대한 관심도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주민참여예산 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2021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의 참여가 코로나 19 이전 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면적 연구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현황을 추적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다 보니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충분한 문항들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타심, 공정성, 관용성 등과 같은 다른 규범적 요소(이근수·송건섭, 2007)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자본 변수들을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어떤 이유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수집 및 활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1): 145-170.
- 권연화·최열. (2021).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 인식 및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 110: 95-112.
- 김대건. (2011). 지역공동체의식이 협력적 갈등해결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9(1): 67-93.
- 김순은. (2014).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역촌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3): 3-34.
- 김정인. (2023a).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 경제적 안정성, 상대적 박탈감을 중심으로. 「행정논집」, 35(3): 315-337.
- 김정인. (2023b).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7(3): 71-98.
- 김정인. (2023c). 청년의 기회 공정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7(3): 55-80.
- 김지영·정문기. (2023). AHP를 활용한 주민참여 및 비참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2(3): 71-99.
- 김진현. (2021).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2): 83-100.
- 안진호·최재성. (2022). 사회자본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비교를 통한 종단연구. 「청소년문화포럼」, 72: 105-137.
- 유민상.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성일. (2017). 미래 정부의 정부간재정관계. 문명재 외, 「미래 사회와 정부의 역할」, 179-207. 경기: 문우사.
- 여유진. (2022).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1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근수·송진섭. (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 이나경. (2022).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2): 220-242.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 287-313.
- 이승중. (2006).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국정관리연구」, 1(1): 64-82.
- 이인숙. (2015).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2): 237-257.
- 이지원·박정운·김양희. (2008).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46(6): 89-100.
- 이희경·박종관. (2012). 사회자본이 지역축제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192-200.
-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27(3): 1-38.
- 장용석·정장훈·조문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2): 45-69.
- 정용찬·하운상. (2019).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3(1): 31-63.
- 정재진. (2020). 道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2): 101-134.
- 정현·정문기. (2019).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2·3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1): 3-36.
- 주성수 외. (2012).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최종연구보고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최문형·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2): 273-306.
- 최선. (2020).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치참여. 「대한정치학회보」, 28(4): 271-294.
- 한겨레. (2022). "사회적 자본이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위기 풀어갈 열쇠" 2022년 11월 10일자 기사.
- 행정안전부. (2019).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 현지우·임동완. (202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2): 187-214.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pp. 78-92). Routledge.
- Checkoway, B. (2011). What is youth particip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2): 340-345.
- Child, S. T. & Lawton, L. (2019).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mong young and late

- middle-age adults: Associations with personal networks and social participation. *Aging & mental health*, 23(2): 196-204.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avidson, W. B. & Cotter, P. R. (1989).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2): 119-125.
- Duke, N. N., Skay, C. L., Pettingell, S. L., & Borowsky, I. W. (2009). From adolescent connections to social capital: Predictors of civic engagemen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2): 161-168.
- Krishna, A. (2002). Enha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mocracies: What is the role of social capita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4): 437-460.
- Fahmy, E. (2006). Social capital and civic action: A study of youth in the United Kingdom. *Young*, 14(2): 101-118.
- Hart, R. A. (1992).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lorence.
- Lamb, M. (2003). *Young conservatives, young socialists and the great youth abstention: Youth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in political parties*. University of Birmingham.
- Lin, N., Fu, Y. C., & Hsung, R. M. (2001). Measurement techniques for investigations of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4: 57-81.
- Loncle, P., Cuconato, M., Muniglia, V., & Walther, A. (2012). *Youth participation in Europe. Beyond discourses, practices and realities*. Bristol: Policy Press.
- McMillan, D. (1976). *Sense of community: An attempt at defini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Naranjo-Zolotov, M., Oliveira, T., Cruz-Jesus, F., Martins, J., Gonçalves, R., Branco, F., & Xavier, N. (2019). Examining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motivators to explain the adoption of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 92: 302-311.
- Narayan, D. & Cassidy, M. F.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2): 59-102.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Pretty, J. (1995) Participatory learning for sustainable agriculture. *World Development*, 23(8): 1247- 1263.
- Sharp, E. B. (1990). *Urba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From service delivery to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Longman.
- Smith, E. (1999). The effects of investments in the social capital of youth on political and civic behaviour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20(3): 553-580.
- Suebvises, P. (2018). Social capital,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sector performance in Thailand. *World Development*, 109: 236-248.
- Teney, C. & Hanquinet, L. (2012). High political participation, high social capital? A relational analysis of youth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41(5): 1213-1226.
- Venkatesh, V., Thong, J. Y., Chan, F. K., & Hu, P. J. (2016). Managing citizens' uncertainty in e-government services: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of transparency and trus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7(1): 87-111.

김 정 인: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인사혁신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정책, 조직행태, 갈등관리, 공론화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인간과 조직을 위한 행정학', '뉴노멀 시대, 위협과 정부 책임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등이 있다(jungink@suwon.ac.kr).

〈부록 1〉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공동체인식	-														
2. 사람 신뢰	.10**	-													
3. 가족 신뢰	.09**	.02	-												
4. 이웃 신뢰	.06**	.19**	.16**	-											
5. 지인 신뢰	.08**	.14**	.35**	.21**	-										
6. 지방자치단체 신뢰	-.02	.14**	.07**	.09**	.18**	-									
7. 종교활동	-.05*	.04*	-.14**	-.01	.05*	.06**	-								
8. 동호회 활동	-.09**	.06**	-.08**	-.04*	.003	.06**	.27**	-							
9. 시민단체 활동	-.06**	.09**	-.27**	-.01	-.08**	.03	.61**	.35**	-						
10. 지역사회 공공모임 활동	-.01	.11**	-.24**	.01	-.05*	.03	.58**	.35**	.80**	-					
11. 등창회/향우회 활동	-.06**	.06**	-.01*	.04*	.05**	.08**	.26**	.39**	.28**	.30**	-				
12. 자원봉사/기부단체 활동	-.01	.13**	-.23**	.009	-.07**	.03	.56**	.37**	.73**	.70**	.32**	-			
13.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	-.03	.11**	-.28**	.01	-.07**	.02	.60**	.35**	.85**	.80**	.32**	.79**	-		
14. 정치사회 현안 활동	-.03	.03	-.15**	-.04*	-.03	.02	.15**	.18**	.14**	.14**	.13**	.16**	.16**	-	
15. 온라인 소통	.02	.04*	.19**	.04*	.12**	.01	-.12**	-.01	-.23**	-.20**	.06**	-.18**	-.22**	-.11**	-
16. 호혜적 규범	.03	.06**	.10**	.11**	.12**	.006	.03	.04*	-.01	.01	.02	.03	.002	.078**	-.003

* $p < 0.05$, ** $p < 0.01$